

# 동성애 · 동성혼 본질에 대한 물음

김승욱 (발행인)

9월 호의 표지인물로는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그로우브 시에 소재한 그로우브 시티 대학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인 데이빗 혹셋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로우브 시티 대학은 기독교 진리와 그리스도 중심의 학식과 폭넓은 세계관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문학 중심 대학입니다. 국내 기독교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있지만, 외국의 기독교학자들의 견해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한하는 기독교학자들을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한한 데이빗 혹셋 교수로부터 성경해석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교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호 특집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개헌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동성결혼의 문제는 동성애와 다른 측면을 내포합니다.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경우 출산율 저하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입양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도미니크 레스비렐이라는 여성은 16년 전 키우던 고양이 듀렉과 결혼했는데, 고양이가 죽자 큰 슬픔에 빠져 이제 강아

지 트래비스와 재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려견을 대신하여 죽지 않는 로봇이 인간 곁을 지킬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로봇공학과 AI와 빅 데이터 세 가지가 결합하면 동성간 결혼이 아니라 로봇과 인간의 결혼이 가능해 지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구상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주관하는 서명운동에서 지난 8월 19일 현재, 총 247개 대학의 2,551명의 교수들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금식기도에 동참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개헌특위 소위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에 예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이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제약규 한동대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같

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앞에 나서면 반기독교세력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성애를 수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표칼럼을 맡고 계시는 손봉호 장로의 주장과 같이 이미 세가 기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동성애 성행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계는 지금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이미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2%가 동성간 성행위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군과 대학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로부터 군대내 동성애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로부터 대학내 동성애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동성애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기업의 광고입니다. 특히 포춘 500대 기업들이 대부분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문서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인규 합동신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동성애와 관련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해외 저자가 쓴 두권의 표준서로 존 스토틀 목사의 Same-Sex Partnerships?: A Christian Perspective와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의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인 저서로는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예영커뮤니케이션, 2011년)과 이요나, 「리愛마마 동성애 탈출」(키네마인, 2015년)를 추천했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비판서로는 Glenn T. Stanton and Bill Maier, Marriage on Trial: The Case against Same-Sex Marriage and Parenting (2004)를 소개했는데, 이 책들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함께 평가를 했으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